

고1 국어  
신사고

2022 고1 국어 신사고 | 6(1)(2) 엄마의 말뚝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엄마의 말뚝」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일부를 제시하고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유형 외에도,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심리나 의도 등을 묻는 문제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물 간의 관계, 내면 심리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병실의 술렁이는 기미에 잠이 깬 나는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목격하게 되고, 마침 병실에 들어온 간호원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 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

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 주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종합 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 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哀乞)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별안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각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

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여든여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중략)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연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掩護)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연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㉔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肉薄)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㉕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연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몫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㉖이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중략)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껴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㉗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㉘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 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

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패륜(悖倫)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패륜에 패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중략)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됐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누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

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엄마의 말뚝 2」

**1. 뒷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는 허공에서 빨래를 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 ② 간호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③ 어머니가 혼신의 힘으로 대결을 하는 적은 군관이다.
- ④ 어머니는 수술한 다리를 죽은 아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어머니가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어머니는 사후(死後)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② ㉡에서 올케는 어머니의 위압적인 언행으로 인해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 ③ ㉢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풀기 위해 강화도 바닷가에서 유골을 뿌렸다.
- ④ ㉣에서 어머니는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에서 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3. 뒷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빠의 시신은 죽었을 당시 가매장했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 화장하였다.
- ② 어머니의 광란에 간호원들은 어머니의 사지를 묶은 뒤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 ③ 어머니는 죽은 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지만 분단 때문에 그럴 수 없음을 한탄한다.
- ④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기가 죽어 지냈었지만 오빠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 ⑤ 어머니가 다리를 자기 아들로 여기는 것은 '나'의 오빠가 과거에 눈앞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외양묘사를 통해 절박한 심리를 드러낸다.
- ② ㉡: 전쟁으로 인한 어머니의 상처와 한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혈육을 잃은 아픔과 한(恨)은 모녀만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 어머니의 광란이 극에 달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 ⑤ ㉤: 자신의 죽음을 짐작한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기 위해 죽기 바로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있다.

**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 ② ㉡에서 ㉣로 호칭이 변화한 것은 화자의 심리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 ③ ㉡는 인물의 됨됨이를 비꼬는 반어적인 표현인 반면, ㉣는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다.
- ④ ㉣를 ㉡와 같이 대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음을 암시한다.
- ⑤ ㉡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비굴함, ㉣는 아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6.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어머니와 '나'는 '오빠'를 매장하는 문제로 갈등했다.
- ② 어머니는 '오빠'의 무덤을 남기자는 올케의 주장을 무례하다고 여겼다.
- ③ 젊어서 과부가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을 키우며 어머니를 늘 원망했다.
- ④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사후 처리를 부탁하며 진정으로 미안하고 애달파했다.
- ⑤ '나'는 '오빠'의 유골을 뿌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삭이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든여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양탈을 해 봤댔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여든여섯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라.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鮮血)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과썸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 다오. 백 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常情)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 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휘이 휘이.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연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꿈쩍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옹호(擁護)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연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肉薄)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연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몫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노옴.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옴, 이노옴.”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옴.”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 「엄마의 말뚝 2」

**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는 고령의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② ㉠: 환각 속에서 저승의 사자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대결하고 있는 어머니의 외침이다.
- ③ ㉡: 외양 묘사를 통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죄의식을 드러낸다.
- ④ ㉢: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처음이 아니다.
- ⑤ ㉣: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되지 못한 '나'의 극한의 공포심이 드러난다.

### 8. 밑줄의 ㉤는 어떤 상황이라 할 수 있는가?

- ① 군관을 어머니가 속이는 것
- ② 군관이 어머니를 위협하는 것
- ③ 군관에게 아들이 발각되는 것
- ④ 군관이 총으로 가족들을 겨누는 순간
- ⑤ 군관의 위협으로 어머니가 공포에 떠는 순간

### 【9~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푹푹 묶게 했다.

“따남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 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어느 날, 문병을 와 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一瞥)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는 장만해 봤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애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애 좀 봐, 그것도 안 해 봤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先塋)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복에 두고 온 논밭 저당(抵當) 잡고 돈도 꺾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墨契) 같은 거지. 어

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줬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㉞누가 뭐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밭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이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

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훑훑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㉞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엄마의 말뚝 2」

### 9. 밑줄 친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디에 묘를 쓸지 상의하지 않았다.
- ②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③ 가능성이 없지만 어머니의 바람을 지켜주고 싶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의 목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댄에 묘지를 사면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는 딸에게 서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 ㉠처럼 표현한 서술자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빠의 죽음에 대한 연민과 공포를 드러낸다.
- ② 화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 ③ 묘지를 미리 장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 ④ 가족의 비극에 대한 고통을 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비극에 대해 자책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11. 밑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빠: 인민군 군관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 ② 나: 이 소설의 서술자로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분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 ③ 어머니: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비통함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인물이다.
- ④ 올케: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서 오빠의 죽음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친구: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묘지와 수의를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에게 책망하고 있다.

**12. 엄마가 ㉡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엄마와 '나'가 같은 경험과 상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엄마와 '나'는 전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엄마와 '나'의 성격이 유사하여 '나'가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때문이다.
- ④ 엄마와 '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⑤ 엄마와 '나'만이 오빠를 화장하여 개풍군 방향을 향해 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3.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올케는 오빠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우리와 재회했다.
- ②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선영에 묘지를 마련할 생각이다.
- ③ 내 친구는 분단이 고착화되어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수간호원은 어머니의 환각 증세를 보고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 ⑤ 오빠는 치료를 받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다.

**14. 밑글의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딸인 '나'밖에 없기 때문에
- ② 어머니의 광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기 때문에
- ③ 어머니가 앓는 병을 자식인 '나'만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④ 어머니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간호원들에게 더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 ⑤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에 맞서는 것은 '나'와 어머니의 몫이기 때문에



**15. 밑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푸는 것
- ② 분단과 홀로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 ③ 어머니가 '나'에게 단호하게 부탁한 것
- ④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인 어머니의 태도
- ⑤ 죽어서나마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어머니의 소망

**최다 빈출 유형 2**

「엄마의 말뚝」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주인공인 '나'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점 상의 특징으로 인해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엄마'의 상처는 관찰을 통해 더욱 더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나'가 한국 전쟁 중, 오빠를 잃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의 작품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병실의 술렁이는 기미에 잠이 깬 나는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목격하게 되고, 마침 병실에 들어온 간호원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 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 주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종합 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 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哀乞)을 하나 보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별안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각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론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 정답 및 해설

### 내신형 기출 문제

#### 1. 정답 ⑤

나는 처음에 어머니께서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의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렸다고 생각했다.

- ①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안 된다, 이노음.'"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2. 정답 ④

㉠에서 어머니는 분단으로 인해 아들을 선영에 묻지 못하고 화장을 하여 뺏가루를 뿌리는 상황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에서 어머니는 사후(死後)에 오빠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화장한 다음, 뺏가루를 북쪽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에서 뿌려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② ㉡에서 울케는 위압적이지는 않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긴 어머니의 말에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 ③ ㉢에서 어머니는 분단으로 인해 아들을 북한 개풍군 땅에 있는 선영에 묻을 수 없자 대신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 바닷가에서 유골을 뿌렸다. 하지만 이 행동은 어머니에게 '말뚝'이 되어 남았으므로 한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에서 나는 어머니의 바람을 '그 짓'이라고 표현

하며, 어머니의 바람대로 행동해야 하는 현실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 이를 따를 것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부담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정답 ③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다오.'를 통해 어머니가 사후에 오빠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화장한 다음, 뺏가루를 북쪽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에서 뿌려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고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매장을 시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와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와 어머니가 다리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부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4. 정답 ⑤

㉠에서 어머니는 '나'와 친구의 말을 듣고는 아들과 같이 자신의 장례를 치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짐작했기 때문에 남긴 유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이후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① ㉠은 아들을 죽인 군관의 환상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서술자인 '나'가 묘사한 것으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절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는 환상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데에 대한 설명으로,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와 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

람들의 반응을 본 '나'가 결심한 것으로, '나' 역시 전쟁으로 인해 혈육을 잃은, 어머니와 같은 아픔과 한(恨)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④ ㉠은 어머니의 광란이 극에 달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나'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극한 상황에 놓인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②

㉠에서 ㉡로 호칭이 변화한 것은 어머니의 환상 속에서 인민군 군관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들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리'에서 '아들을 죽인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① ㉠과 ㉡는 모두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굴하게 아부하는 것으로 인물의 됄됨이를 비꼬는 반어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려우며, ㉡는 아들을 죽인 군관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다.

④ ㉡를 ㉠과 같이 대우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군관에게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비굴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는 아들을 죽인 군관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6. **정답** ④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러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오빠'를 매장하는 문제로 갈등한 것은 어머니와 올케이다.

② 어머니가 '오빠'의 무덤을 남기자는 올케의 주장에 반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를 무례하다고 여겼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올케가 젊어서 과부가 된 것 때문에 어머니가 기가 죽어 지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올케가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을 키우며 어머니를 늘 원망했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나'는 '오빠'의 유골을 뿌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삭이는 여인의 모습이 아

닌,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7. **정답** ①

㉠은 어머니가 수술로 쇠약해진 데다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는 어머니가 저승사자의 환영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임종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③ ㉢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환상 속에서 공포를 느끼면서도 인민군 군관에게 최대한 비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가 서술한 것으로, 이러한 외양 묘사는 어머니의 절박함과 한을 드러낸다.

④ ㉣은 어머니가 전쟁 중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에 이어, 환각 속에서 다시 한 번 그 때 일을 겪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⑤ ㉤은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되어 혈육을 잃었던 당시의 일을 다시 떠올린 '나'의 감정을 드러낸다.

8. **정답** ③

어머니는 과거 전쟁 중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 마음 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으며, 환상을 보면서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나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군관에게 아들이 발각된 때를 다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⑤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댄 데다 묘지를 사 놓니?'를 통해 나는 댄에 묘지를 사면 어머니가 죽어서라도 선영 곁에 눕고자 하는 마음을 모른 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① '묵계'란 '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 맞음. 도는 그렇게 하여 성립된 약속'이라는 뜻으로, 이를 통해 어머니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디에 묘를 쓸지 상의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

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墨契)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를 통해 알 수 있다.

10. **정답** ④

오빠처럼 자신을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나’는 ‘그 짓’이라고 표현한다. ‘나’는 분단의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와 같이 표현하여 가족의 비극에 대한 고통을 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①, ②, ③, ⑤ 앞뒤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④

올케는 오빠의 무덤을 놓고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지만, 오빠의 죽음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다.

- 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정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처와 한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분단의 비극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나는 이 소설의 서술자로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미로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다 이후 엄마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분단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비통함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인물로,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환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나’가 미리 묘지와 수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나’를 ‘나이롱 딸’이라고 질책하는 부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2. **정답** ①

엄마가 ㉞와 같이 말한 것은 ‘나’가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와 같이 말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전쟁 중에 혈육을 잃은 비극적인 상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③, ④ 앞뒤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
- ⑤ 오빠를 화장하여 개풍군 방향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적어도 어머니와 ‘나’, 그리고 올케 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13. **정답** ③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抵當) 잡고 돈도 꺾 달랠라.’”를 통해 분단 상황에 대한 ‘친구’의 인식을 알 수 있다.

- ①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을 통해 올케는 ‘나’와 어머니가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할 때 재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땀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를 통해 ‘나’는 어머니가 선영에 묻히고 싶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른 곳에 묘지를 마련할 생각임을 알 수 있다.
- ④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를 통해 수간호원이 어머니의 환각 증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윗글에서 오빠가 치료를 받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4. **정답** ⑤

엄마가 ㉞와 같이 말한 것은 ‘나’가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와 같이 말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직접 그 아픔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앞뒤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①

어머니의 마음 속 한은 단순히 선영에 묻히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며,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분단 상태가 극복되어야 한다.

②, ③, ④, ⑤ ㉠은 뱃가루를 고향 선영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뿌리는 것으로, 어머니가 '나'에게 단호하게 부탁한 것이다. 이는 죽어서라도 분단과 홀로 맞서려는 씩씩하고 도전적인 어머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아들과 같은 방식의 장례를 치러 죽어서나마 자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6. **정답** ①

㉠은 간호원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② ㉡은 어머니의 연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③ ㉢은 환상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겪는 어머니가 하는 말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강한 모성애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④ ㉣은 군관을 다시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을 '나'가 묘사한 것으로, 어머니의 절박한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⑤ ㉤은 어머니가 인민군 군관을 부르는 호칭으로, 환상 속에서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다급해진 어머니의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17. **정답** ⑤

윗글은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생각한 점을 서술하고 있으며, 다른 인물의 심리와 의도는 말과 행동, 외향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① 윗글에서 빈번한 장면 전환이 활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윗글에서 인물의 말을 통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④ 윗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의 주인공인 '나'로,

이야기 안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18. **정답** ②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와 '혈관에 꽃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윗글에서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윗글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이 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윗글은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여,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⑤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심리만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서술하고 있으며, 다른 인물의 심리는 꿰뚫어 보지 못한다.

19. **정답** ④

윗글은 작품 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가 인물에 이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① 윗글에서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급격하게 진행시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윗글에서 인물의 과거 경험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긴 하지만,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⑤ 윗글은 작품 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생각한 점을 서술하고 있다.

20. **정답** ②

윗글은 어머니의 발작을 계기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여, 이를 통해 어머니와 '나'가 가진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① 윗글에서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유리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윗글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적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의